

오늘의 성가

입 당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성 체	180 496	주님의 작은 그릇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봉 헌	212 513	너그러이 받으소서 면병과 포도주	파견	245	맑은 하늘 오월은

말씀의 초대 ㉮ 살렘 임금 멜키체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어 오천 명의 장정을 먹이신다(복음).

제 1 독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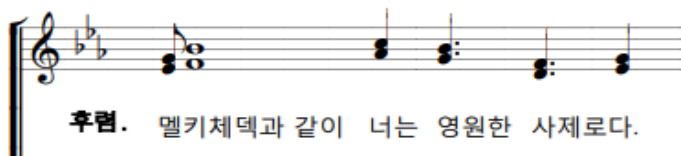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4,18-20

그 무렵 살렘 임금 멜키체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0(109),1,2,3,4(◎ 4 ㄴㄷ)



후렴.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서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찬양하라 정성다해 생명주는 거룩하온 우렁차고 성대하다 새임금님 새것와서 그리스도 거룩하신 모든교우 물질세계 빵과술의 살은음식 나눔없고 한사람도 선인악인 악인죽고 나닌성체 걸모습은 천사의빵 이사악과 참된음식 저희먹여 전지전능 하늘시민	시온이여 찬양하라 천상양식 만찬때에 유쾌하게 이날축일 베푼잔치 옛것쫓고 명하시니 말씀따라 믿는교리 넘어서니 형상안에 피는음료 갈림없어 천사람도 모시지만 선인사니 조각마다 쪼개져도 길손음식 파스카양 작한목자 기르시고 주예수님 이세상에 되게하고	목자시며 찬양하고 모두함께 열두제자 기쁜노래 성체성사 새파스카 예표가고 만찬때에 빵과술을 빵이변해 감각으로 표징들로 두가지의 온전하신 같은주님 운명만은 함께먹은 온전하게 가리키는 자녀들의 선조들이 주예수님 생명의땅 이세상에 주님밧삼	인도자신 찬양해도 기념하며 받아모신 함께불러 제정하심 새법으로 진리오니 하신대로 축성하여 성체되고 알수없고 드러니는 형상안에 주예수님 모시어도 서로달라 사람운명 주예수님 실체만은 참된음식 먹은만나 저희에게 이끄시어 죽음인생 함께있는	구세주를 우리능력 오늘특히 그빵임이 용약하며 기념하는 낱은예식 어둠대신 기념하며 구원위해 술이변해 믿음으로 놀랄신비 그리스도 모든이가 무궁무진 삶과죽음 다르고도 계시움을 손상없이 개에게는 이성사의 크신자비 영생행복 저세상에 상속자로	찬양하라. 부족하다. 찬송하라. 틀림없다. 찬양하라. 날이로다. 끝내도다. 빛이온다. 거행한다. 구원위해 성혈된다. 확신한다. 감춰있네. 온전하다. 모시도다. 끝이없네. 갈라진다. 다르도다. 의심마라. 그대로다. 주지마라. 예표로다. 베푸소서. 보이소서. 들어시어, 만드소서.
--	--	--	--	--	---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1 ㄴ-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잡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김지화(미카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곽창진(스테파노)의 영혼을 위하여 - 곽 루시아 김종전(마르코)의 영혼을 위하여 - 메타천 구역 조순덕(안나), 조규수의 영혼을 위하여 - 나브루노 가족 채병익(요셉), 유태순(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채희백(바오로) 가족 김하호님의 영혼을 위하여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Daniel Joseph Curran 의 영혼을 위하여 - 원암우(베드로), 원 글라라 이성우(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원암우(베드로), 원 글라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정우(바오로) 형제님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빌며 - 최태영(스테파노) 가족 정영철(프란치스코) 형제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 양영길(그레고리오)/반석회 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홍원기(에우세비오) 가족 맹완식(어거스틴), 최태영(스테파노), 손영학(빈첸시오), 임광선(요한) 최기쁨, 밝음, 누리의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Alison Wong 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며 - 채 요안나/밀알공동체 박락준, 이서형, 박서진 건강히 순례길 잘 다녀오기를 빌며 -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추혜림, 마이클 오, 이승빈, 추혜웅의 졸업을 축하하며 - 이호용(프란치스코) 서승준(비오)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빌며 - 한철희(필립보) 가정 목경일(레오나르도)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빌며 - 한철희(필립보)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998	OLM 주일 헌금	\$ 3,758	미사 참여자 수	156 명
교무금 (\$1,925)	김삼식(6) 백원선(4-6)	정영옥(5-6) 유근성(7-12)	이기순(1-6) 허중(4-5)	곽신규(5-6)	맹세실리아(1-5)
감사 헌금	윤규옥 (\$ 200)	박서진(\$500)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 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공동체 소식

◆2 차 헌금

• 6/22-6/23 양일간 선교지원금 모금을 위해 교구청 Sharing Program 대표께서 방문하여 과달루페, 탄자니아, 아이티 선교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2019 Bishop's Annual Appeal

• 6월 20일까지 165명의 신자분께서 참여해주셨고, 총 납부약정 금액은 \$36,888.98이며, 목표금액 \$35,000의 105.4% 달성하였습니다.

◆야외미사

- 일시: 7월 1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Donaldson Park Grove 3A & 3B

◆매일미사 책 신청

• 1년 구독 비용: \$48
 • 문의: 백영숙 헬레나 (732-841-9982)

◆사무실 휴무 안내

• 7/1(월)-7/9(화)까지 사무실 휴무입니다

◆신자등록서 배부

• 6월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였으니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주보 광고주 모집 안내

• 칼라주보로 새롭고 알차게 꾸미려고 합니다.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도 다시 부활하려하니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란에 격주로 년 200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6/29-6/30일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비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St. Joseph Church Vacation Bible Study

- 일시: 7월 15일-19일, 오전 9시-12시
 - 참가대상: 4세-10세 아동(Pre-K to 5th grade)
 - 참가비: \$35/1명, \$65/2명, \$90/3명 이상
 - 접수마감: 7월 10일(수)까지
 - 문의: St. Joseph Religious Education Office 732-356-0645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정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전례회의

- 일시: 6월 23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6월 30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복사단 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23일(일) 미사 후 친교실
- 일 년 동안 수고해주신 복사단을 위한 피자파티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용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9,11 ~ 17 (성체 성혈 대축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루카 9,13)

1. 예수님께서서는 굶주린 군중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세상’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제자인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언제, 무엇을 내어 주고 있나요?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루카 9,14)

2.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십니다. 자리를 잡은 사람이 예수님의 양식을 얻습니다. 지금 내 몸과 내 마음이 자리를 잡은 곳은 어디인가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루카 9,16)

3.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 명의 양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눔 것’이 가져온 풍요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눔 것’이 가져온 기쁨과 보람을 맞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루카 9,51-62 (연중 제 13 주일)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루카 9,56)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의 냉대도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신비는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곧은길을 마다하고 기꺼이 돌아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나누어 봅시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루카 9,60)

2.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인연을 넘어서는 초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전부이자 제 1 사명입니다. 나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는 기쁜 만남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9,62)

3.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미련과 후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은 단호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이 깊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고 나누어 봅시다.